

2차선 도로에 1차선 터널 '아찔'

나주 북암리 폭 7m 농도
폭 6m 통로박스 연결돼
안내표시·안전장치도 없어
야간운전자 사고위험 '상존'

국도 밑을 지나는 농도(農道)가 확장됐지만 통로박스 폭은 그대로여서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은 광주~목포간 1번 국도 금천과 다시간 대체도로 공사를 올해 말 완공 목표로 시행하면서 나주시 다시간 북암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마을 인근 국도 밑을 지나는 농도를 지난 3월 폭 4m에서 2차선(폭 7m·길이 730m)으로 확·포장했다. 부지매입과 공사비 등 3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농도는 확·포장된 반면 정차 국도 밑을 지나는 통로박스 폭(6m)은 지난 2007년 설치한 그대로인데다 확장된 도로에 비해 좁은 통로박스가 1m 이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기형적인 도로형태가 돼 주민과 운전자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농도 폭에 맞는 통로박스 확장이 돼야지만 우선적으로 도로구조상 운전자들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입



도로보다 폭이 좁은 통로박스가 한 차선을 가로막은 나주시 다시간 북암리 인근 농도(農道). 주민과 운전자들은 통로박스의 확장에 앞서 야간 통행차량들의 안전을 위한 모래벽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있다.

간판과 과속방지턱, 모래벽 등 야간 안전 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 확·포장 이후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나주시는 최근 익산청에 안전 시설물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운전자는

"새로 확·포장하는 도로를 한 차선이 완전히 가로막힌 기형적인 형태로 만들어놓고도 안전시설물 하나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안전은 고스란히 운전자들 몫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나주시 다시간 영동리 농도(길이 180m) 역시 사업비 1억3000여만 원을 들여 확장했지만 위험이 뒤따르는 마

찬가지다. 통로박스를 통과한 후 영동리 인근을 지나는 지점이 급커브를 이뤄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 지방국도관리청 관계자는 "통로박스 확장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전북 소식



순창군 적성 슬로공동체 관계자가 2일 섬진강 마실숙박단지 앞 문바위 부근에서 학생들에게 복원한 어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순창 적성공동체, 조선시대 '어살' 복원

대나무 울타리로 물고기잡이

대나무를 엮은 발로 물고기를 잡는 조선시대 '어살'이 순창에 복원됐다.

순창군과 적성 슬로공동체(위원장 최훈)는 2일 적성면 석산리 섬진강 마실숙박단지 앞 문바위 부근에서 어살 복원 행사를 가졌다.

어살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대나무를 울타리처럼 엮어 만든 발로, 조선시대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과 적성슬로공동체는 전통문화 복

원으로 주민들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어살 복원을 기획했다. 이날 행사와 함께 주변 7개 마을 주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 장터도 열렸다.

최훈 위원장은 "옛날에는 추수가 끝난 후 마을단위로 섬진강에 모여 어살을 설치하고, 천렵 등을 통해 주민 소통의 놀이문화공간을 형성했다"며 "이번 어살복원이 마을과 마을을 아우르는 소통의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서 오늘 '공무원 야구대회' 개막

23개 중앙행정기관 700명

'제13회 중앙행정기관 야구동호인대회'가 3~10일까지 군산 월명야구장과 금강야구장, 전주야구장에서 펼쳐진다.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전북경찰청·전북도·군산시 야구협회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무총리실 등 23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야구팀 700여명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이 밖에도 군산지역에서는 10일부터 '군산 새만금 경기대회'와 '군산 새만금

배 낚너배구대회' 등 크고 작은 체육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차세대 군산의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80여억원의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번 대회 동안에도 참가선수들을 포함한 가족, 응원단 등이 군산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군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희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천문연구회 내일 '별나라 여행축제'

올해로 15년을 맞은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전북지부 정읍지회(회장 강철형·이하 정읍 천문연구회)가 4일 오후 6시 정읍 어린이교통공원에서 '별나라 여행축제'를 연다. 정읍 천문연구회는 당초 지난 8월에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태풍 '나크리' 영향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읍 천문연구회 회원들이 직접 별자리를 알려주고, 천체망

원경을 통해 시민들에게 달과 천체를 관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충남대 교수인 이태형 박사(천문우주기획 대표)가 '달과 별, 우주를 꿈꾸며'를 주제로 한 천문학 강좌도 진행한다. 지난 2002년 2월 창립한 정읍 천문연구회는 회원들의 천문지식 함양과 함께 정읍 시민들의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박관서 시인 '기차 아래 사랑법' 출간

광주·전남작가협회 부회장
30년 철도원 인생 시에 담아



"...벌써 삼십년이 흘렀다/ 기차가 지나갔다 그와 나의 등허리를 밟고/ 바람도 지나갔다/ 푸른 등 붉은 등/ 미안하지만 / 그와 나는 같은 꿈을 꾸는 것이다."(시 '신호기' 중에서)

30년째 철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정읍 출신 박관서(50·본명 박관섭·사진) 시인이 새 시집을 펴냈다.

박 시인은 4일 오후 5시 목포역 맞이방에서 신간 시집 '기차아래 사랑법'(푸른 사상 펴냄) 출간 기념회를 갖는다.

1996년 '삶, 사회 그리고 문학'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작가는 2000년 첫 시집 '철도원 일기' 발간 후 14년만에 두번째 시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신간 시집에는 '기차 에피탈', '막차를 보내

며', '겨울 완행열차', '꽃처럼 이쁜 야근' 등 60여편의 시가 실려있다. 문학평론가 이명원 씨는 이번 시집에 대해 "그가 기차와 땀흘리면서 사랑한 것의 결과"라면서 "정년의 철도" 또는 '철도의 정남'이라는 것에 대해 독자들이 하여금 진지한 감각과 사색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평했다.

한편 박 시인은 30년째 철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호남선 동탄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국작가회의 목포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전남작가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제7회 운상원 문학상을 수상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박치기왕' 김일 고향 고흥 금산면 거금도서 흑염소 박치기왕 대회

내일 특이 빨 전시·시식행사도

우리나라 레슬링계 전설적인 '박치기왕' 고 김일(1929~2006) 선수의 고향인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에서 이색 행사가 열린다.

고흥군 금산면 흑염소협회(회장 김용표)는 '거금도 섬꽃 향연'(1~6일) 행사의 하나로 4일 오전 10시부터 금산면 청석마을 거금생태공원에서 거금도 흑염소 박치기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흑염소 9마리가 출전해 반경 4m의 8각형 링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기량을 겨룬다. 흑염소는 주로 빨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고, 경기운영 규정에 따라 심판진이 승패를 결정한다.

최고의 흑염소 박치기왕에게는 상금 50만원, 준우승에게는 30만원, 장려상 2명에게는 각각 2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금산면 흑염소협회는 모양새가 특이한 염소들을 별도로 전시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흑염소 불고기와 소금구이 등 시식행사도 연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SD메디컬 빌딩임대
양산사거리 최고상권!
지하 주차장 시설완비
엘리베이터 2기 운용(대형,중형)

6층
98평
병의원 및 사무실

3층~5층
각층 124평
병의원 및 사무실

1~2층 임대완료
레스토랑,약국,다이소

지하1층 주차장

SD메디컬 빌딩

용두주공 양산타운
APT APT •광주은행

건물관리 유행철차 모집
연령 50세 이상

문의 : 010-8625-1131(분양사무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화정동 티마인즈 단지 661㎡(200) 7층 건물 245㎡(741) 은행 15억 전세 4억 이상 월 1500선 수익매도 23억
- 북구 병원, 요양시설 적합 단지(057㎡(320) 건물 1962평 34억
- 금남로 가구정 단지 416㎡(126) 공사지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계림동 준주거 단지 799㎡(242) 5층 건물 1610㎡(487) 감정 14억 5천 은행8억3천 사육 등 복합 교환가능 10억
- 유동로터미널 단지 236㎡(101) 건물 185평 공사지가 399천 매도 4억천
- 금남로 4가 대로 단지 317㎡(97) 건물 1235㎡(363) 공사지가 14억 매도 14억5천
- 모래길 근매 부근 번산단지 167㎡(507) 건물 1394㎡(422) 객실 48개 대용 6억1500 매도 7천2천
- 전원주택/집합주택 환수권 단지 126908㎡(38390) 공사지가 6억6천 환수 권에서 15분 거리 10분

투자 / 매도 / 교환

- 쌍촌동 단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기계와 안질 월용 15개 5억 2천
- 쌍촌동 신축건물 단지 215㎡(65) 건물 418㎡(126) 안질과 월용 5개 투룸 4개 대용 1억5천 매도 6억4천
- 모래길, 담양 단지 978㎡(296) 객실 24개 은행 3억7천 매도 5억천
- 충정로5가 4거리 코너 단지 272㎡(87) 건물 493㎡(149) 8억2천
- 쌍촌역 고시원 단지 272㎡(87) 건물 493㎡(149) 보증금 3천만원에 월 490만원 선 수익 노후상환에 적합 5억2천만원
- 반백나루산 정형권 산계권 36099㎡(10900) 1억2천
- 광주역 모래길 단지 635㎡(192) 객실 36개 은행 7억5천 매도 11억
- 보성빌을 토지 순천시 신시빌 단지 360평 3300만원
- 진월동 호반아파트 옆 단지 201㎡(61) 대용 7500 매도 1억8200

임대

- 쌍촌동 기도생활주택 1.2차 임대 매도 임대는 보증금 500 월 40선 1.1차 임대건은 조경 호들갑 시설, 생활 편의에 완벽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간

바닷가 전원주택지
완도군 고금 해룡리 남향 바닷가 조망원룸형 전원주택지

- 지역 : 생산관리지역 등
- 지목 : 전
- 면적 : 7,670㎡
- 매가 : 3.3㎡ 당 12만

소액 투자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고금신지 국도 주변 바닷가. 경사 완만. 전망 좋음.

- 지역 : 관리, 농림 혼합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8,569㎡
- 매가 : 3.3㎡당 3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점, 조망권 최고 !!

- 지역 : 1종 주거지역
- 지목 : 전
- 면적 : 1917㎡
- 매가 : 3.3㎡당 120만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특별
빌라분양 6세대

충분양가
530,000,000원

1세대 월세
보 2천만원, 월50만원

1세대 전세
보 7천만원

1세대 분양
1억1천만원 가능

1세대 용차
6천만원

1세대 | 전용 59.4㎡
| 분양 72.6㎡

◎ 위치 ◎
광주 북구 운암동 140-22

부자가치 100%
"강력추천"

다와옥션
☎062)232-9994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